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30일
(월요일)

북부신문 8면

수유중학교 임원 학생들 강북구의회 견학 체험활동

모의의회도 개최, 구의회 여러 시설들 둘러보며 지방자치 배워

수유중학교(교장 박상근) 학생들과 교사 16명이 지난 20일 의회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를 방문했다.

강북구의회는 그 동안 관내 초·중·고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해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의회 견학에서 수유중학교 임원진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각자 의장, 부의장, 구의원과 구청 국장 역할

을 맡아 모의의회를 실시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의회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강북구 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역할, 강북구 현황 등에 대해서 학습했다. 이어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실, 의원 휴게실, 의원사무실, 민원 접견실 등 구의회 시설을 둘러보고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의 참 모습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동식 의장을 비롯해

유인애 의원, 김명숙 의원이 참여해 학생들의 모의의회를 참관하고 격려했다.

김동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학생의 본분”이라며 “아울러 건강한 체력을 위해 틈틈이 운동하기를 바란다.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해 남을 위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웃과 친구를 배려하고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오늘 의회 체험활동이 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어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현규 기자

(donstopme@hanmail.net)